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99)	봉헌 (211)	성체 (180)	파견 (200)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조용하고 정중한 자세를 가집니다.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다리를 포개서 앉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주보를 읽는 등의 해동을 삼가 합니다.
-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살짝 대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너무 등을 기대어 마치 눕는 듯한 자세를 하지 않습니다.
-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정성이니만큼 깨끗한 금전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봉헌을 하러 나가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은 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미사 전에 미리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손을 다쳤거나 아이를 안은 사람은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면 됩니다.
- 주보 등 인쇄물은 성당에 두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보며 본당은 움직임과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합시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27	유 요한	이바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로
6/3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로
6/10	이 마틸다	이바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로
6/17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로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72	\$	\$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6 월 10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6 월 17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건강성사 축하 (박 민성- 다니엘, 이 조앤-메리)

어제 주교님을 모시고 다니엘과 메리 오랜기간의 건강 공부를 마치고 건강성사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앞날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성령 쇄신 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No refundable reservation fee (개인당 \$20)를 참가 신청 시 미리 내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말씀의 이삭

모든 삼진은 흠련으로 가는 길이다

-최희 마리아 | 아나운서-

‘아이러브베이스볼’이라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처음 진행한 이후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 사람들은 야구의 매력이 뭐냐고 묻습니다.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스포츠 야구는 저마다 사랑받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저는 야구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어서 야구를 더욱 좋아합니다. 야구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스포츠입니다. 통상 훌륭한 타자로 여겨지는 3할 타자는 10번의 기회 중 3번은 성공했고, 7번은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아도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보여줍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만의 타석에 섭니다. 어떤 날은 만족스러운 방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욕심만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야구에서처럼 저도 만족스러운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엔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저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저의 실수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여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돌이켜보니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 속에 흔들리며 배우게 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법’ 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3할 타자만 돼도 잘한거야’라는 생각을 하니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실패에도 너무 깊이 상심하거나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기를 바랐던 것이 어찌면 나의 오만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니까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마음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고, 늘 성공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성공적일 수는 있는 거니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 베이브루스는 선수 생활 동안 714개의 홈런을 치며 12번의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홈런을 기록할 수 있었나 묻자 그는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2번의 홈런왕이면서 5번의 삼진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삼진은 흠련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의 말은 술한 실패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히브 12.7.11)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맞는 시련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훈육이자 결국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상식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7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까닭은 교회가 영성체를 권장하지만 남용이나 미신적인 집착은 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